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홍병주 베드로

(1798-1840)



서울 명문 양반가에서 태어난 홍병주는 1801년 신유박해로 할아버지 홍낙민(洪樂敏)이 순교한 뒤, 아버지를 따라 충청도 서산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자랐다. 조상 때부터 지켜 온 믿음을 물려받아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동생 홍영주(洪永周)와 함께 충청도 내포 지방의 회장이 되었다.

기해박해가 한창이던 1839년 9월, 동생과 함께 체포된 홍병주는 포청에서 몇 차례의 고문을 당한 뒤 형조로 이송되었다. 당시 친척이던 형조판서는 홍병주, 영주 형제를 인정상 직접 신문하지 않는 대신, 하관(下官)에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배교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홍병주는 가장 지독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어 낸 그는 동생보다 하루 앞선 1840년 1월 31일, 5명의 교우와 함께 당고개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당시 나이 42세였다.

성화_서전복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부활 제4주일 · 성소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4,8-12

화답송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 28-29(◎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 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다. ◎

제2독서 1요한 3,1-2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11-18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하룻 샘



미디안이 진을 쳤다는 모레 언덕

기드온, 판관의 소명을 받다

기드온은 므나쎄 지파 출신의 판관입니다. 그가 백성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은 일은 판관 6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충실치 않은 대가로 노동의 결실을 적에게 빼앗기는 고통을 겪습니다. 백성이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의 무리가 올라와 양식을 남겨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3-4절). 판관 드보라 시대에는 카인족 야엘, 곧 모세의 미디안 사람 장인 호박의 후손(판관 4,11)이 이스라엘을 도와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쓰러뜨렸지만,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위협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바로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판관으로 세워진 과정은 펍 특이합니다. 그는 오프라의 집에서 적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밀을 몰래 떨다가, 향염나무 아래에서 발현한 천사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천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대부분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아들에 대한 수태고지를 전해들었을 때, 그 소식을 알려준 이가 천사였음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천사가 제단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깨닫게 되지요(13,16.20-21). 기드온의 경우에는 그가 정말 하느님의 전령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천사에게 징표를 청합니다. 이에 천사는 돌에서 불이 나오게 하여, 기드온이 놓아둔 고기와 빵을 불사름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였습니다(6,20-22).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었습니다(7,9-11). 그랬던 그가 용사로 거듭나 이스라엘을 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판관으로 세워졌다는 천사의 말에 기드온은 하룻 샘에 진을 치지만(1절), 정작 그가 두려워 떨자 이를 아신 주님께서서는 시종 푸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먼저 살펴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기드온은 적군이 끈 꿈, 곧 보리 빵 하나가 굴러와 미디안의 천막을 쓰러뜨렸다는 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냅니다(13-15절). 그 보리 빵이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이고, 농경민(보리 빵)이 유목민(천막)을 꺾는다는 의미임을 알아 차렸기 때문입니다. 그 뒤 기드온은 군사 삼백 명과 함께 미디안을 제압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때, 미디안의 보초병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리는데요(19절), 아마도 임무를 마친 이들은 피곤하고 막 교대한 이들은 잠에서 덜 깬 터이므로, 그들을 쉽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백 명의 병사가 단지를 깨고 나팔을 불어 적을 교란시키자, 미디안은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치고 받다가 쓰러졌으며, 이스라엘은 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21절). 미디안은 한동안 서로를 죽이다가 요르단 동쪽, 곧 자신들이 쳐들어온 방향으로 도망쳤고(22절)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8,28).

성소 주일인 오늘, 참으로 부족한 우리 자신이지만, 주님께 서는 이런 결핍까지 살펴 채우시어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처음엔 겁쟁이었다가 용사로 거듭난 판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 (사회적 약자) ⑤ - 인간관계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번 주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인 회칙 「모든 형제들」 72-76항, ‘이야기의 등장인물’의 요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회칙은 이 비유가 ‘강도들의 약탈’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굳이 그것을 깊이 다루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 대신에] 권력, 이득, 분할이라는 하찮은 이해관계들이 이미 방치와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드리우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폭력을 피해 달아날까? 강도들을 뒤쫓아 갈까?’ 하는 물음이 아무리 현실적이더라도, 그런 질문으로 ‘화해할 수 없는 우리의 분열, 잔인한 우리의 무관심, 우리 내부의 갈등’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72항).

둘째, 회칙은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람들’ 곧 사제와 레위에 관해 깊이 성찰합니다. 우선, 회칙은 그들의 ‘소심한 무관심’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이가 사회적 약자들과 그들의 문화를 경멸하거나 아예 관심 밖으로 밀어내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안전한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무관심’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73항). 다음으로, 회칙은 그들이 하느님께 봉헌된 종교인이었음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을 믿는 것과 경배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는 보증일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회칙은 믿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때로 믿는 이들보다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적극적 관심과 구체적 실천을 강조합니다(74항).

마지막으로, 회칙은 강도들이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람들’ 가운데서 비밀 동맹자들을 찾아낸다고 지적하면서 이 비밀동맹의 통탄할 위선과 독재의 위험을 경계합니다:

“[강도들과] 사회를 조작하고 기만하는 자들, 또 거리를 두고 떨어져 공정한 비평을 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 사회 체제와 체제의 혜택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 사이에는 작용과 반작용(비밀동맹)이 존재합니다. 범죄의 면책과 개인 및 기업의 이득을 위한 제도의 악용 그리고 근절할 수 없어 보이는 다른 악들이, 모든 것에 대한 잔인한 비난과 불신과 혼돈을 낳는 의심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일을 동반한다면, 그것은 정말 통탄할 위선일 것입니다. 이런 위선은 환멸과 절망만 키울 뿐, 연대와 관용의 정신 같은 건 조금도 촉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자포자기에 빠뜨리고 나면 완벽하게 사악한 하나의 회로가 완결됩니다. 그런 회로를 완결하는 것이야말로, 자원들(경제)뿐 아니라 사고(思考)하고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문화와 정치)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려는, 숨어 있는 이해관계들의 비-가시적 독재가 예정(豫定)하는 것입니다”(75항). 🌐

성소가 뭐 거창한 건가요

오래전,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방송 작가를 시작했으니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거고,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면서 몸이 약해진 거지요.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이 마흔 되던 해였으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큰딸은 수험생이었고, 작은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들까지 겹쳐서 약해진 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앉아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늘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주일 미사만 간신히 드리고, 기도 생활은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며 동네 수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갈색 수도복을 입고 들어가시는 수사님의 뒤를 따라서 말이지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뤄진 이끌림이었습니다.

수도원 경당에서 하염없이 성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삶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며 아등바등 살아온 제 삶이 성체의 빛 속에 녹아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나면서 더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만의 독백이고 회개였습니다. 저 자신을 용서하고 하느님과 화해한 뒤, 제가 시작한 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 그리고 임종자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체조배를 하러 갈 때도 긴급 기도를 청해온 분들의 문자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병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환자와 가족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겪어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들

‘병마’(病魔)라고 했나 봅니다. 제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마흔에 찾아온 그 무섭던 병마가, 저에겐 이렇듯 귀한 중재기도의 사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열떨결에 나선 길이었지요. 갈색 수도복을 입은 수사님 뒤로 열떨결에 수도원 경당에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칠혹 같은 밤, 거대한 배 한 척이 비바람에 방향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두려운 마음에 지켜보고 있는데, 물 위로 흰 종이 같은 게 둥둥 떠내려옵니다. 건져서 펼쳐보니, 커다랗게 ‘중.재.기.도’라고 써어 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표류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이 시대, 어려운 많은 이들과 연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중재기도를 바쳐달라고 권고하셨지요.

모세가 광야 길에서 양팔을 높이 들고 중재기도를 바치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졌습니다(탈출 17,8-16). 하느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며 간절히 바친 모세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제 병고로 인해 시작된 미약한 기도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고난의 짐을 덜어주는 중재기도의 씨앗이자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지금은 임상사목교육(CPE)을 받은 영적 돌봄가로서 암 환자와 트라우마 증상을 겪는 이들을 만나 위로합니다. 성소가 뭐 거창한 건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어떤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



교구
소식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일시 4/27(토) 16시~18시

장소 파주 엑소더스(파주 조리읍 송비말길 79-39)

주제 보조성의 원리 (각론) - 전쟁의 시대, 평화의 길 / 강주석 신부

신청 및 문의 031-948-8105 (금, 토 휴무) / 1회 참석도 가능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5/5(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4/26(금)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신용복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의정부교구 ME 제140차 주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

날짜 4/26(금)~28(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4515-3854 ME 주말분과대표

제31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궁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5/10(금) 19시 ~ 12(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트럼펫, 타악기

일시 5/19(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자유곡)

문의 010-8419-0073

[담화] 성소주일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전신자 성경 읽기 4/21(주일)~27(토) : 루카 9,49-10,12



4/27(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헌 베드로 주교 감사미사

2024년 4월 29일(월) 11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미사 · 피정 ▶▶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4월 한마음 어게인 Talk 특 부활 토크콘서트

일시: 4/27(토) 10시 (파견미사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늘광장
주제: 말씀을 통해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회비: 1인당 4만원 (식대 포함)
신청: 4/21(주일)까지 [선착순 15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젊은이 봄 피정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날짜: 5/4(토)~6(월) [2박 3일]
장소: 평창 라베르나의 집
문의: 010-5715-1702

3.4지구 성령기도회 월피정

일시: 4/26(금) 13시~16:30, 주교좌 의정부 성당
강의·미사·인수: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문의: 010-3790-0496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 피정

일시: 4/22(월) 13:40~16:30,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정성훈 파비아노 신부
문의: 010-8917-0090

온라인(Zoom) 33일 묵상회

일시: 4/29(월) 20시 [5/31(금) 봉헌]
회비: 3만원 (교재 포함)
문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학교

2024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캠프

일시: 8/5(월)~7(수), 8/7(수)~9(금) 15시
대상: 청소년부(중고등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5/31까지 [선착순 80명], 회비: 23만원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평화 학교 -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1차: 5/18(토) 15시 ~ 19(주일) 13시
2차: 6/22(토) 15시 ~ 23(주일) 13시
3차: 7/20(토) 15시 ~ 21(주일) 13시
4차: 8/24(토) 15시 ~ 25(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내 피정의집
회비: 8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4/23(화) 이상기 가브리엘 회장
담당사제: 김중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22회 젊은이 전국 연합 성령축제

성령 강림 대축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가톨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5/19(주일) 10시~17시
장소: DMZ 생태관광지원센터(파주시 임진각)
회비: 1만원 (식사 포함)
문의: 010-9574-6469 의정부성령쇄신 청년회장

2024년 성령쇄신 전국 치유대피정

일시: 4/27(토) 09시~17:3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양창우 신부, 한연희 신부, 오웅진 신부
미사: 구요비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의: 02-777-3211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5/10(금)~12(주일)
성경완독: 5/17(금)~25(토), 6/21(금)~29(토)
효소단식: 5/30(목)~6/2(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교육 · 모집 ▶▶

힐링 드로잉 수강생 모집 - 바오로딸

성경 속 식물 컬러링 북
일시: 5/13~6/3 매주(월), 14시~16:30 [총 4회]
대상: 노인대학 봉사자, 관심 있는 분
회비: 5만원 (교재 포함)
문의: 031-875-7004 의정부 바오로딸 서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4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접수: 5/7(화)~20(월) 17시 / 전형: 6/3(월) 14시
문의: 02-3147-8156, 02-3147-8664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순교영성아카데미 - 순교영성 특강 시리즈

<순교영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
- 성경, 교의, 역사, 영성, 인문사회과학 등
4/25(목) 제2강: 순교의 인류학적 고찰-공감과
순교의 관계, 한장호 신부(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5/9(목) 제3강: 한국천주교 교회사연구와 순교자
현양운동, 조한건 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장)
날짜: 매월 둘째·넷째(목) 14시~16시
장소: 새남터 순교성지
문의: 02-3275-1485, www.kmartyr.com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4년 봄 특강

일정: 5/22~6/19 매주(수), 12:10(미사) [5회]
강의: 13:30~15:30 / 회비: 5만원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
5/22(수) 빛과 어둠의 화가 카라바조, 고종희 교수
성 김대건 신부, 바티칸에 서다, 한진섭 조각가
5/29(수) 바티칸과 바로크 미술: 베르니니를 중심으로, 양정무 교수
6/5(수) 미술이 자연을 전하다!, 이동욱 신부
6/12(수) 당신의 빛으로 빛을 보웁니다:
성당 건축과 빛, 김광현 교수
6/19(수) 성 프란치스코와 르네상스, 기경호 신부
문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석·박사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접수: 4/22(월)~5/2(목), 전형일: 5/18(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민들레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모집

근무형태: 전일제 1명 (정규직)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공로 42
모집 : 5/31(금)까지 [서류접수 후 면접]
문의: 031-947-9047
www.caritasdaegun.or.kr
※ 자세한 내용은 대건카리타스 홈페이지 참조

재속 맨발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자
첫모임 : 6/10(월) / 문의: 010-9836 8998

길음동 성당 묘원(울대리) 직원 모집

분야: 묘지 사역 및 현장작업자 1명 (계약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길음동 성당 (성북구 길음로9길 74)
또는 hope9237@seoul.catholic.kr
문의: 02-912-4612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드락 6기 모임 - 사별가족모임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종교 무관) / 회비 없음
기간: 5/14~6/11 매주(화), 13:30~16:30 [5회]
장소: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남양주시 불암산로 99)
문의: 010-8985-9971, 010-9313-9265

제24회 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ZOOM) 특강

주제: 자녀와 부모의 신앙단계 알기와 신앙 이어주기
일시: 5/24(금) 19:30~21:30
강사: 조재연 신부 / 접수: 5/19(주일)까지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영선반 직원 채용

부서: 고객지원팀 영선반(실내외 작업)
근무: 주5일 근무 (주40시간, 08:30~17:3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세한 내용은 hanmaum84.com 참조

진접 성당 사무장 모집

자격: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 엑셀, PPT)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접수: 4/28(주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6/27(목)~7/6(토) 동부지중해크루즈 성지순례 (549만원)
7/12(금)~23(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460만원)
8/26(월)~9/6(금) 튀르키예, 그리스 (485만원)
9/2(월)~9/13(금) 발틱3국, 폴란드 (49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출발: 9/19(목) / 비용: 599만원 (+2,0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6/15(토) 이탈리아 일주 (10일, 490만원)
9/16(월) 튀르키예, 그리스 (10일, 409만원), 동반자 할인
9/23(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2일)
10/8(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75만원)
12/2(월) 미사부,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성지순례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날짜: 5/23(목)~25(토) 성모의 밤, 6/19(수)~21(금)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구반장 맞춤형 피정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6/7(금)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라파엘 가을특선 성지순례

9/11(수) 추석 특선 출발 (10일)
알프스와 중세 수도원(545만원) / 이탈리아
(535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535만원)
9/16(월), 10/6(주일), 10/20(주일) 출발
튀르키예, 그리스 (409만원)→동반자 100만원 할인
10/6(주일) 나가사키 (145만원)
10/13(주일) 성모님 발현지 (485만원)
10/22(화) 이탈리아 성지순례 (520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 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 순례 피정: 5/14(화)~16(목),
5/27(월)~29(수), 6/2(토)~24(월)
성지 순례 피정: 5/2(목)~5(주일),
5/8(수)~11(토), 5/19(주일)~22(수)
6/3(월)~6(목), 6/15(토)~18(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5/6(월)~8(수), 5/17(금)~19(주일),
5/22(수)~24(금)
추자도 포함: 5/26(주일)~29(수)
제주성지순례: 7/1(월)~3(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한국외방선교회	5/5(주일) 11시	서울 성북동 본원	010-8715-284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4/27(토) 14시	서울 보문동 수녀원	010-9353-1773

한국 천주교회 신학교의 역사

신학교는 사제직을 희망하는 이들을 영성적, 윤리적, 지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입니다. 신학교를 의미하는 라틴어 [세미나리움](seminarium)은 '못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못자리는 어린 모종들이 결실을 얻을 땅에 옮겨 심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지요. 이 단어가 신학교를 가리키는 말로 처음 공식 사용된 건 트렌토 공의회(1545-1563)에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의 역사는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신학생으로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가 뽑혀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지만, 앵베르 주교는 국내에서도 사제를 양성할 필요성을 느껴 정하상과 이신규 등에게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1839년 기해박해로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신학교 교육이 시작된 건 1855년입니다. 충북 제천 베론에 최초의 신학교 '성 요셉 신학당'이 세워져 신학교육이 이뤄졌는데, 이때도 1866년 병인박해로 신부들이 체포돼 순교함으로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후, 1885년 원주 부영골에 다시 '예수성심신학교'가 설립되는데, 조불수호통상조약(1886)으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자 1887년 서울 용산구 원효로(현 성심여자고등학교 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천주교의 발전과 함께 1914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출신 신학생들을 위하여 대구에 '성 유스티노 신학교'가 설립되었고, 1927년에는 함경남도 덕원에도 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예수성심신학교는 일제의 탄압으로 1942년 폐쇄되면서 학생들이 덕원 신학교로 편입하기도 했는데, 이후 1945년 2월 '경성천주공교신학교'로 개칭하여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때 용산에서 혜화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성 유스티노 신학교는 폐교하고, 덕원 신학교도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으로 1949년 5월에 문을 닫게 됩니다.

한편, 경성천주공교신학교는 해방 뒤 1947년 4월에 '성신대학'으로 승격, 인가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한국 전쟁으로 인해 휴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1951년 1월엔 제주 서귀포에서, 그해 4월엔 부산 영도에서 신학생 양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전쟁 이후, 1953년 9월부터는 다시 서울에서 신학교육이 이뤄졌고, 1959년에는 '가톨릭대학'으로 학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962년 3월에는 광주에 '대건신학대학'(현 광주가톨릭대학교)이 개교해 충청북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의 신학생들을 양성하였습니다. 1982년 3월에는 대구에 '선목신학대학'(현 대구가톨릭대학교)이 설립되었고, 1983년 12월에는 수원가톨릭대학, 1990년 12월에는 부산가톨릭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93년 3월에는 대전가톨릭대학, 1995년 12월에는 인천가톨릭대학이 설립되어 사제 양성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소 주일을 맞아, 특별히 성직자와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빕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들이 많이 나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9: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 성소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성소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5월 병자 영성체

새 교구장님의 착좌식 관계로 일주일 연기합니다.

일 시: 5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본당 사목협의회의

일 시: 4월 21일 주일 교중 미사 후

■ 4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4월 28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과달루페 성모발현 성지 순례

2024년 11월 중에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발현 성지를 순례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선착순 20명 신청받습니다.

■ 행주성당 교우들이 주교님께 드리는 영적예물

기도내용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미사 및 영성체	184회	128회
목 주 기 도	3,241단	2,843단
성 체 조 배	153회	112회
회 생	191회	120회
화 살 기 도	599회	
새 교구장님을 위한 기도		587회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자

- 4월 21일 정봉열 안셀모
- 4월 23일 배현숙 헬레나

■ 본당 교우 혼배 성사

2023년 부활 대축일에 세례 성사를 받은 정승운 토마스 형제가 정가영 플로라 자매와 5월 5일 부활 제6주일 미사 중에 혼배 성사를 받습니다. 모든 분 들이 축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 5월 성시간

일 시: 5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